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엡 5:2)

오늘 예배 강사

일시: 6월 4일(오늘) 1~3부 예배시
강사: 김희석 목사(충신대학원 구약학 교수)



금요 집회 강사

일시: 6월 9일(금) 금요집회시
강사: 마이클 오 선교사(국제 로잔 총재)



금주 기도원 집회는 쉽니다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청년 연합예배 (브릿지 주관)

일시: 6월 4일(오늘) 14:00
장소: 2교육관 4층 (한나홀)
대상: 청년1부, 청년2부, 브릿지 공동체

새가족 등록 안내

오늘 충현교회 오신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아직 본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성도님께서는 등록하셔서 더 풍성한 성도의 교제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 장소: 본당 출구 로비(좌측) 새가족등록실
등록 시간: 주일 09:00~15:00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기도회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특별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집중기도하면서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6/21(수), 6/28(수) / 2주간, 오전 10:00 ~ 10:40
장소: 베다니홀
대상: 충현의 전성도
주관: 예배위원회 중보기도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뉴욕 리디머 교회를 개척해서 섬긴 목회자이자, 복음 중심적 설교와 변증으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받아들여졌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순종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반응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났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앙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시작한다면 잘못된 접근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강요나 협박을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아 내시려는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먼저이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에 해당하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다가오는 이 때에 한낮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시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제1기 통일선교 사역자 훈련

일시 및 장소: 6월 3일, 10일, 17일(3주간) 10:00~12:00, 베다니홀
강사: 최준호 목사(충신대 서울 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숭실대 통일학 박사)
대상: 각 교구 선교팀장 및 교육 희망 성도
신청 방법: 교구간사실 및 선교위원회에서 신청서 작성

2023년 제1차

유아세례 교육, 문답 및 세례식 안내

- 유아세례교육 : 6월 4일(주일)까지 진행
- 유아세례문답 : 6월 4일(주일)
- 유아세례식 : 6월 11일(주일), 찬양예배 시 진행
- 유아세례 일정

날짜	시간	교육내용	장소
6월 4일	13:00~14:00	문답	해당교구 & 부서별 장소
	14:00~15:00	믿음의 가정을 세워라	박요셉 목사 제1교육관 302호
6월 11일	주일찬양예배	유아세례식 14:50까지 본당 입실	본당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히브리서 11:8-12)



제 삶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미국으로의 이민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낯선 환경과 새로운 언어습득으로 인하여 위장병에 걸렸을 정도로 이민은 막막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이민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8절b)” “갈 바를 알지 못하고”에 대하여 공동번역성경은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성경은, “He went out not caring where he was going” 어디로 가는지 신경도 쓰지 아니하였고, “He went out not needing where he was going” 어디를 가는지 알 필요도 없이 갔다고 기록합니다. 당대에 가장 발전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도인 갈대아 우르의 시민으로서 그곳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갈 곳도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위 ‘땀 땅에 헤딩하듯’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8절a)” 아브라함은 자기를 불러내신 이가 함께 해 주시리라는 약속을 신뢰했기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던 때였습니다. 저녁 무렵, 갑자기 샤워를 하고는 향수도 뿌렸습니다. ‘어디 가니?’라고 묻는 제 물음에 아들은 그저 ‘밖에 나가요’라고만 답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어디로’ 가는 것보다 여자친구와 ‘함께’ 간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누구와 가는가에 더 초점을 두었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제 신학교 시절 은사셨는데, 마지막 채플에서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창 12장)으로 설교하셨습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신학교 교수의 삶을 접고, 모두가 염려하는 뉴욕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시며 저희에게도 ‘편안한 곳에 안주하지 말고, 불러내신 하나님을 믿고 불편함과 어려움이 기대되는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투명한 미래와 보장된 바가 없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가시면 믿음으로 걸음을 떼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장막에 거하는 믿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9절)” 영어로 텐트라 표현되는 장막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임시 주거지였습니다. 이민자에게 정착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거주할 집의 마련은 정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대는 물론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동식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0절)” 아브라함은 자신의 진정한 본향과 집을 보았기에 이 땅에서 장막에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집이 있으면 이민 생활에서 보다 쉽게 정착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성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집은 본향에 이미 있기에, 세속적 가치관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제공해주신 사택은 대단히 큰 마당이 딸린 곳이었습니다. 여름철, 마당의 잔디를 깎고 그곳에 텐트를 쳐놓으면 저녁에 아이들은 자기 방을 마다하고 그 텐트에서 잤습니다. 자기 방과 침대가 편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텐트에서 자면서, 깔깔대며 웃고, 재미있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자기 집이 있으면 텐트에서 자는 것이 추억쌓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진짜 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텐트에서 지내는 나날도 추억쌓기가 됩니다. 누군가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더라도 그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즐길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추억으로 만드는 기가 막힌 비밀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또 다른 단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며,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혈기있는 20대의 젊은이가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생산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어 죽은 상태였기에 믿기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11절)” 육신을 보았을 때에는 소망이 없었지만, 성경은 약속을 하신 분이 미쁘신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미쁘신 분’이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실 정도로 믿을 수 있는 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금 노력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미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창 15:9)”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금방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당시 계약을 맺을 때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쪼개어 갈라, 피가 철철 나는 참혹한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지나가며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 B.C. 2000년경은 청동기 시대였기에, 다 자란 소와 염소 그리고 양을 자르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령의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그 사이를 훑 지나갔습니다. 원래 약속국과 강대국이 계약을 맺을 때, 약속국의 임금이 제물 사이를 지나갈 뿐 강대국의 왕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며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아니한 그 사이를 친히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이 계약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피를 흘리리라. 아브라함이 계약을 어기더라도 내가 모든 책임을 받으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미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을 많이 어깁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한 결단도 많은 부분에서 미치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기에 우리는 떨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계약을 어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최악의 댓가를 치르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는 우리를 믿지 못할지라도, 아무리 결심해도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다시금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갈라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며, 우리의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진짜가 있는 삶을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가능할지라도, 미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전하며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When You Don't Know
Where to Go

(Hebrews 11:8-12)

Rev. Hanyoh Kim

The most shocking event in my life is the emigration to U. S. A. The emigration was so desolate for me because of the unfamiliar environment without any acquaintances and the acquisition of a new language that I suffered from a stomach disorder. There appears an immigrant even in today's message. He is the very Abraham. "obeyed and went, even though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v.8b). The Joint Translation Bible expresses it like "In fact, he went without knowing where he was going." The English Bible records, "He went out not caring where he was going" It means he had no concerns about where he was going. "He went out not needing where he was going" It means he went out without needing to know where he was going. As a citizen of Ur of the Chaldeans, the capital city of Mesopotamian civilization, it was not easy for him to leave the place, but Abraham left with faith without knowing where to go. However, this is not a faith so-called 'Heading to the Ground'. "By faith Abraham, when called to go to a place he would later receive as his inheritance," (v.8a). Abraham could go because he trusted in the promise that He who called him out would be with him. It was when my son went to work after his graduation from the university. In one evening, he suddenly took a shower and put on perfume. When I asked, 'Where are you going?', my son simply answered, 'Out.' It's because the fact that he goes with his girlfriend is more important for him than where to go. Abraham also could leave because he focused on whom to go with. Pastor Tim Keller, who passed away last week and was my teacher during my seminary days, preached in his last chapel Abraham who leaves his country, his people and his father's household (Ge 12). Delivering the message that 'he quits 'a comfortable and safe life of the seminary professor' and pioneer a church in Manhattan, New York, about which everyone is worried, he advised us 'not to stay safely in cozy places, and by believing in God, to go to the path in which discomforts and difficulties are expected'. My dear believers, even though you do not know where you are going and you have an unclear future and nothing to be guaranteed, please confirm who you are going with. If the Lord goes with you, take a step with faith and challenge.

Faith of dwelling in tents

"By faith he made his home in the promised land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country; he lived in tents, as did Isaac and Jacob, who were heirs with him of the same promise" (v.9). The 'jang mak' in Korean, which is expressed as a tent in English, was a temporary dwelling that could be moved at any time. To immigrants, settlement was the most important issue, and the preparation of the house for dwelling symbolically shows settlement. Not only Abraham lived in portable tents in his own generation, but also so did his son Isaac and his grandson Jacob. "For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with foundations, whose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v.10). Because Abraham saw his true home and true homeland, the tent in which he lived on this earth did not matter to him. This is applied in the same way to us the believers living today. Having a house can make you easily settle down in the life of immigrants, but it cannot be in itself the standard of success. Because the true house of believers is already in the homeland, they can live richly by faith transcending worldly values. When I was ministering in the east, the house provided by the church had a considerably large yard. In summer, if I mowed the lawn in the yard and setting up a tent there, my children quitted their own rooms and slept in the tent. Despite the convenience of their rooms and beds, children slept in the tent, laughed, and enjoyed themselves, through which, I realized, they were piling up memories. If you have confidence in the true house in the city of God, every day you spend in the tent becomes piling up your memories. Even if someone talks about his/ her success and failure, God makes him not worry about it but enjoy it. The Bible refers to the amazing secret of

making today's hard and difficult circumstances memories, and the Bible says it is 'belief'.

Another aspect of faith

God also made a promise about offsprings to Abraham. God said Abraham would be the father of all nations, Sarah would be the mother of nations, and his descendants would be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nd as the sand of the seashore. By the way, this promise was given to Abraham and Sarah by God not in their twenties when they were full of energy but in their old ages when they were not able to give birth to offspring. It was a promise which is difficult to be trusted because they were physically in the dead state of giving birth. "By faith Sarah herself received power to conceive, even when she was past the age, since she considered him faithful who had promised." (v.11). Though the physical bodies looked hopeless, the Bible records the one who had promised was faithful. 'The one who is faithful' means he is a believable one who has never broken his promise, and whose promise is always accomplished as it has been made. Accordingly, because God who is faithful promised him, Abraham believed it not only in a situation needing a little bit of effort but also even in a desperate and hopeless situation. "So the LORD said to him, "Bring me a heifer, a goat and a ram, each three years old, along with a dove and a young pigeon." (Ge 15:9). God ordered Abraham to prepare animals to help his assurance. Abraham seemed to know God's intention immediately. This was because it was the form of making a covenant at that period. They made a covenant passing through a horrendous and sanguinary situation of splitted animals. Because it was the Bronze Age, B. C. 2000, which was about 4,000 years ago from now, it might not have been easy to cut a full-grown heifer, a goat or a ram. When Abraham in his old age was dozing off after he had done all this work, the torch symbolizing the presence of God passed through like a flash. Originally, when a weak country and a powerful country made a contract, the king of the weak country passed between the rows of sacrifices, but the king of the strong country did not pass between them. Nevertheless, God, the king of all kings, made a covenant and in person passed between the splitted sacrifices which Abraham didn't pass. It means that 'If I do not do according to this covenant, I will bleed. Even though Abraham breaks the covenant, I will bear all the responsibilities.' Even though Abraham only believed God who is faithful, God accepted this as righteousness.

I will try to apply this to us. We break a lot of promises we have made before God. Even the resolution made toward God at the beginning of the new year falls short in many aspects. If God repays according to what we have done, no one can avoid it. Nevertheless, the covenant of God with Abraham is still valid and we can remain intact. Even though we break the covenant, God splitted his one and only son on the cross to pay the price for our sins. Owing to God who carries out the covenant faithfully, despite the fact that we cannot believe in ourselves and that we are so weak that we fall in spite of repeated resolutions, we can go forward asking His grace. It's because the Lord was splitted on the cross in place of our sins according to the covenant. We believe when we go forward by believing in the cross, God counts us righteous and makes impossibility possible. Although we do not know where to go, and we are afraid of our uncertain futures, I hope you can challenge boldly the life of truthfulness with the Lord. I believe that though it's impossible for us, we can go forward and challenge with the belief in God who is almighty and faithful.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will be victorious by means of this belief.

영역·이울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올해 장애인 주일은 사랑부 설립 35주년을 맞아 5월 21일과 28일 2주간 '장애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행사들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행사 중 제가 속한 다니엘반 (아동·청소년반)은 '도전! 장애 OX 퀴즈대회'를 맡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취지의 퀴즈 문제를 풀 어보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퀴즈대회 진행자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는 내 성격에 진행자라니?" 하지만 같이 봉사하는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의 헌신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를 항상 보아왔던 저는 감히 못 하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얼떨결에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퀴즈대회를 진행하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느 순간 저는 대본에도 없던 퀴즈대회 참여 독려, 사랑부 교사 모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했던 저였지만 어느새 저도 퀴즈 대회를 즐기고 있었는지 마지막 회차가 끝나고서는 ' 벌써 끝났나?' 싶을 정도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퀴즈 문제를 출제해 주신 임진실 목사님과 대본을 짜 오신 저의 파트너 진행자 박충헌 선생님 덕분에 그리고 퀴즈대회의 시종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사랑부가 많이 부흥하고 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선생님들도 많이 오셔서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랑부는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부 교사의 절반이 섬김을 받으셔야 할 1940~50년대생 믿음의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부에 대한 관심이 아주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함께 사랑부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 사랑부 교사 윤지현

장애인 주일 행사를 통해 뜨거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충현의 모든 성도들과 사랑부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연합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부'를 섬긴지 이제 1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으로 시작된 첫 섬김은 저의 영혼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18:3]"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랑부' 성도들의 믿음은 너무나 순전했고, 저를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곳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가진 잘못된 편견과 인식부터가 많이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살아가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을 뿐이지, 비장애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부터 새롭게 하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써 함께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사랑부 교사 이정민



충현복지관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장애가 있어도 이웃이 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따뜻한 햇살이 포근한 5월.

장애인 주관을 맞이하여 충현복지관에서는 충현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예술작품전시와 더불어 발달장애인 사진작가가 직접 촬영해주는 포토존, 이웃사랑의 글귀가 담긴 행택을 나무에 다는 사랑나무 꽃피우기,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굿즈를 아낌없이 나누는 부스까지 다양하고 풍성한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충현교회의 많은 성도께서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며 장애인도 여느 이웃과 다르지 않은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이에 공감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충현복지관은 발달장애 이웃도 살만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스티커 설문



사랑나무 꽃 피우기



발달장애인 사진작가의 포토존



발달장애인 예술작품 전시

발달장애인의 개성 있는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수준과 작품성이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장애 이웃이 비장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길 수 있게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캠페인에 참여한 성도의 소감1

평소에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행사 때 DSLR 카메라를 능숙하게 다루고, 뛰어난 예술작품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동등한 이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 캠페인에 참여한 성도의 소감2

충현복지관 개관 28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행사



기념예배 및 식



기념예배 및 식



지역사회 나눔 행사



푸드트럭 이벤트

지난 5월 23일 화요일, 충현복지관 개관 28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충현교회 이성환 목사님이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하시며, 사랑하심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열심히 연습한 축하공연, 직원들과 이용인 대표가 직접 찾아가 기념품과 떡을 나눠드리며 감사를 표하는 시간, 그리고 관내 발달장애인을 위해 준비한 개관 기념이벤트까지 풍성하고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충현교회 이사진과 관부모 임원 등의 내빈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시어 더욱 풍성하고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충현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음악 시간에 열심히 연습했는데, 다들 좋아해 주셔서 너무 기뻐요! 모범 이용인으로 상도 받고, 선물도 받고, 꽃도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충현복지관 열심히 다닐 거예요!

- 이용고객 ○○○님

충현복지관의 개관 기념행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기념행사를 준비해주신 직원분들과 이용인분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현복지관이 걸어갈 길에 함께 해주시길 기도 드립니다.

- 직원 ○○○님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아도나이(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에클레시아(교회)가 파라(성령님)와 함께 7교회를 돌며 만나는 이야기이다. 예전에 금요집회 시에 담임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들이라 더욱 흥미롭게 다가왔다. 버가모 교회의 흰돌, 라오디게아교회의 미지근한 물, 자주옷 장사 루디아.. 서머나 교회 폴리랍의 순교 장면에선 눈물이, 사탄 디자이너의 능청스런 연기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우리가 유혹되기 쉬운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이비나 동성애 같은 이슈들도 녹여냈다. 이것쯤은 괜찮겠지..하며 죄를 눈감고 싶은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나에겐 루디아나 에클레시아 같은 마음이 언제 있었던가 되뇌어보았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고대하고 있는가? 나는 왜 저런 사모하는 마음과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렸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 파라는 항상 에클레시아를 뒤에 편히 태우고 앞서 행했다. 성령님은 에클레시아와 끝까지 동행하며 길을 잃었을 때는 길을 알려주시고, 죄절할 때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앞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더 확실히 알게 되어서 감사했다.

- 12교구 함희정 집사

충현교회 70주년 행사로 요한계시록 뮤지컬 공연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교회에서 공연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뮤지컬은 생각보다 너무 완벽했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뮤지컬 내용 중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은 주인공들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보여지는 것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제 믿음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재밌는 요소가 있어 2시간 넘는 공연이었으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를 재밌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뮤지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쁜 소식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일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뮤지컬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청년3부 이용현 집사

교회에서 뮤지컬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평소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았던 분들을 초청하고 전도하기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농인들을 위해 여러 가지를 배려해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수어 통역을 해 봤지만 뮤지컬 통역은 처음이라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수어 통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시의 영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농인들이 이번 뮤지컬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규삼 목사님께서 금요집회 때 설교 하셨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복습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먼저 농인들에게 7교회의 다양성과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요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진행되면서 최대한 배우들과 비슷한 표정과 동작으로 수어를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뮤지컬은 끝나고 조명이 켜졌는데도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인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받았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농인과 청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 강가일 사모

감정표현이 서툰 사춘기 청소년 자녀들도 감동적이었고, 재미있었다고 한다. 권사님들은 담임목사님을 통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뮤지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은 말씀이 생각났고 더 생생하게 다가왔다고 하신다. 특별히 장애가 있는 성도님들은 평소 뮤지컬 관람을 할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다. 그야말로 온 교회적으로 동참하게 된 의미 있는 잔치였고, 은혜와 여운이 길게 남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평소 전도하고 싶었던 지인들에게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고 고백들도 하신다. 이번 뮤지컬을 준비하기까지 여러 가지 쉽지 않았겠지만 그 열매와 유익은 너무나 풍성 했다. 내용적으로도 너무나 탄탄한 구성과 구체적인 적용을 주는 메시지였다. 성령님의 함께하심에 다시금 깊은 감격과 감사를 하게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더욱 깨어있어야겠다.

- 위안복 목사

이번 뮤지컬을 통해 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던 성령님과 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하루 중 120분을 어떤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 청년부 박정현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초청 뮤지컬 '요한계시록'





약간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질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뮤지컬로 접하니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극중 성령과 에클레시아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본 각 나라의 상황은 마치 우리의 상황과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각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처음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뜨거운 믿음을 가지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으로 기다리며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 청년부 김주영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뮤지컬로 쉽게 알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저의 현재 모습도 돌아볼 수 있었고 앞으로 저의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에클레시아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아도나이 왕자인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쁜 소식인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길 소망합니다. 에클레시아와 파라 여행이 저의 미래가 되고 제 삶의 터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 초등부 조아인



사랑하나요 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을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 초등부 이서진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접하지 않은 사람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성경에 나온 7교회의 문제들은 현 세상의 타락과 죄악으로 가득찬 사회 문제들을 반영하며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괜찮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자신을 희생한 왕자를 찾기 위해 떠나는 에클레시아의 여정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많은 성도들을 그리고 있어 더 몰입이 된다. 또한 에클레시아 옆에서 늘 아도나이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파라의 모습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시 돌이키는 성령님을 보게 하며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다.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보라고 추천하고 싶으며 이미 한번 본 사람들에게는 한번 더 보면서 그 안에 담긴 비유를 찾아 보라고 권하고 싶은 뮤지컬이다.

- 청년부 김혜연



